

36_1_한국어_一里塚跡

일리총 자취

일리총이란, 에도 막부 [1603-1867]가 중요한 가도에 약 4 킬로미터마다 일정한 높이로 쌓아 놓은 흙두둑입니다. 이 흙두둑 위에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. 여행자는 여정의 기준으로 일리총을 활용하고, 또 햇볕이 강한 날에는 이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.

그러나, 철도의 발달로 인해 도표의 필요성을 잃어버려서, 일리총은 소실했습니다.